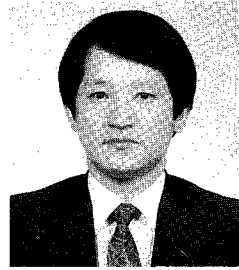


'97나고야 국제양계 · 양돈 박람회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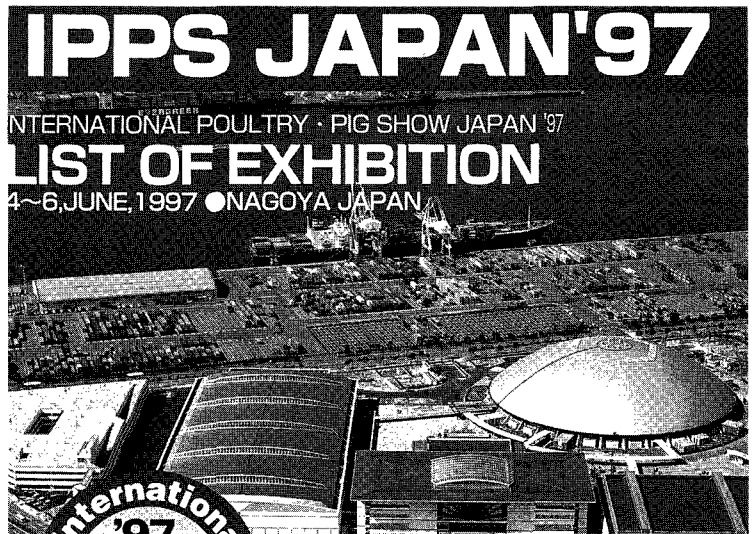
박 규 덕
(주)대해양행 부장

나고야하면 요즘 우리는 프로야구선수 선
동열을 떠올린다. 나고야를 근거지로
한 프로야구팀 유니치드래곤즈의 태양(SUN)
“선(SUN)동열” 현재 유니치의
수호신으로 활약이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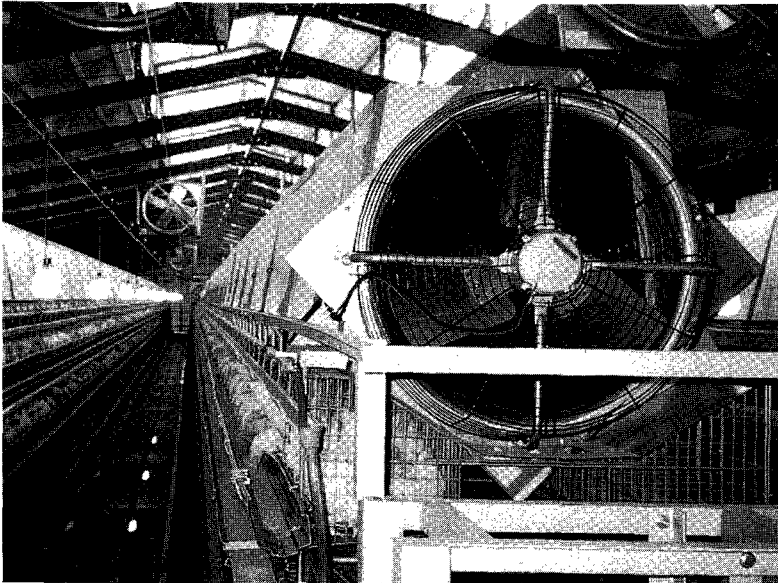
한편 예로부터 ‘나고야코친’이
라는 일본 토종닭으로도 유명한
지방이 바로 나고야인데 현재는
동경·오사카에 이어 일본 제3
의 도시로 동경과 오사카의 중
간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제3회 '97나고야 국제양
계 · 양돈박람회는 지난 '94년
대회에 비해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물론 참관인의 숫자가 성공의 바로미터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숫자로 볼 때 '94년의 1만여명
참관객이 이번엔 불과 6천여명으로 집계되어



△ 나고야 박람회장 전경



△ 요시다 개방직립 케이지헨시스템

끝에 개최된 것으로 원래 '92, '94에 이어 '96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업계불황 등을 이유로 한 해 연기해 개최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금년도 경기는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이나 한해 연기된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출품사나 관람객수가 매우 적어진 듯했다.

또한 지난 대회가 나고야 시내에서 개최된 것과 달리 이번엔 시외곽의 변두리에서 개최된 것도 내방객 감

출품사 및 관계자들의 실망이 보통이 아닌 듯 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와 일본의 집계 방법차이인데 지난 '95년 한국양계박람회에 수만명이 관람했었다고는 필자의 말에 일본관계자는 놀라움과 함께 통계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은 관람등록한 사람만의 숫자인 반면 우리는 거의 출입한 사람의 숫자라고 보면 될 듯 싶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좀 더 실질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해 줄 것을 박람회 준비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한국양계박람회 그리고 미국양돈박람회와 같은 달에 잡힌 개최시기”

한편 이번 박람회는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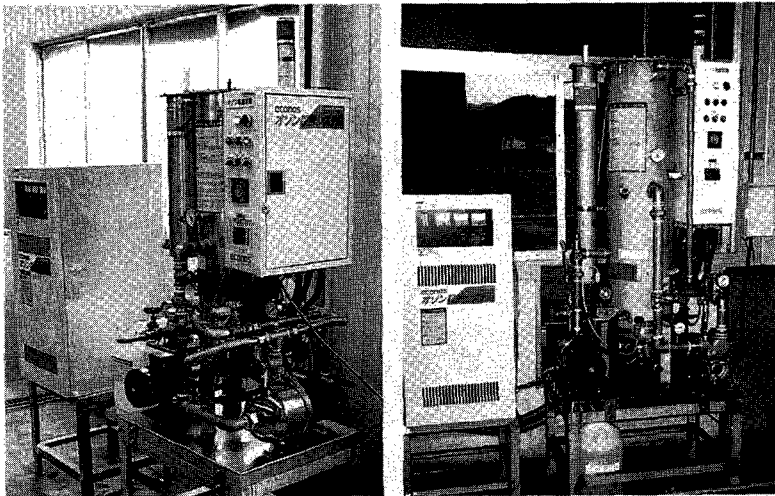
소의 커다란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분 간격으로 시내를 왕복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내방객 수송에 큰 몫을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로 우리나라 양계박람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좀 더 나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

“분야별로 본 주요 전시품 및 특징”

이번 박람회를 분야별로 크게 분류해 보면 우선 양계종합시스템에 12개사, 계란 및 GP관련분야에 14개사, 계분처리시설 분야에 9개사, 종계 및 육종관련분야에 15개사, 약품 및 첨가제 분야에 7개사, 건축 및 자재관련 분야에 7개사, 축산기계 및 기구분야에 18개사, 사료회사 5개사, 기타 19개사 등 총 106개사가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에코노스저팬의 오존수(水) 살균장치

물론 여기엔 한 회사가 여러 분야에 참가한 것도 모두 포함한 집계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각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양계시스템은 전시품목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직립식 케이지 일색이었다. 물론 홍보물 안엔 A형 케이지도 들어있었지만 구색만 갖춘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국산 품은 요시다, 고신, 나카매틱 등 3개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외국업체 또는 기술제휴업체가 대부분이었다.

특기할 만한 시스템은 요시다시스템이 개발한 무창용 직립시스템으로 케이지 상단부에 연결된 3단 변속 케이지철편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음 GP관련 분야에선 나벨, 교와할 것 없이 자동과란 검출시스템이 출품되어 관심을 끌었

는데 이름하여 Auto-Crack-Detector(ACD)는 금년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모델에 선택 사양으로 부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외에도 초음파 호치키스 시스템(전기를 이용한 이동식 계란 캡솔용착기)으로 일반 호치키스 대신 이 기계로 빠르고 간편하게 포장할 수 있어 중소규모 계란상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예상가격은 ¥55,000, 금년 7월 중순 출시 예정. 그리고 가미(加味)계란 삶는 기계

(계란 삶을 때 껍질을 까지 않고 소금맛, 카레 맛 등이 계란에 자동으로 배게 하여 소금을 안 찍고도 맛있는 삶은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장치). 현재 일본에선 철도역 매점에선 이 기계로 삶은 계란이 3개에 ¥220(약 1,800원)으로 연간 1,200만개가 팔리고 있다고 한다. 시식 결과 대부분 맛있었다는 후평.

다음은 역시 세계적인 공동관심사인 축산공해, 그중에서도 계분처리시설분야인데 대표적인 회사로는 오카다제작소의 계분처리기가 인기였으며(한국에도 수출해 1년간 고장없이 잘 가동되고 있다함.) 특히 폐유를 이용한 계분소각기는 관심의 초점이 되었는데 1일 폐유 230ℓ로 14~16m³의 계분처리, 단, 4억이란 비싼 가격과 계분의 수분함량이 60%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였다.

다음은 육종분야인데 근년 들어 일본도 특수란 증가로 갈색계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흰색과 갈색의 중간적인 '핑크색계란'(일명 : 사쿠라계란)이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본 '고토부화장'에서 만들어낸 '고토교배종사쿠라'가 바로 핑크계란의 주인공이다.

이 핑크계란은 흰계란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 역시 품종에 있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계일색이었다. 참고로 최근 일본 계란값을 살펴 보면 일반위생란은 개당 ₩16, 특수란(요드란, 자연란 등) 개당 ₩50으로 우리나라 물가수준과 비교해 볼때도 엄청나게 싼 가격이었다.

이러니 생산원가를 낮추지 못하는 산란업자는 도태되고 말 뿐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었다.

그 밖에 GP장 위생설비 전문사인 '에코노스 저팬사'의 오존수(水) 제조장치가 관심을 끌었는데 60℃물을 이용해 오존을 발생시켜 계란 및 GP작업공간을 살균, 위생관리해주는 기계로서 주간엔 계란살균, 야간엔 GP장 공간살균이 가능하며 규모에 맞게 2종류중 골라 쓸 수 있는데 시간당 4만개정도 GP기라면 약 ₩370만(약 3,000만원)정도에 설치가 가능하며 다소 비싼 편이긴 하나 식품위생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요즘 고객에게 위생적으로 확실한 제품을 보장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결코 비싼 투자는 아닌 듯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일본 애계원 GP장을 비롯해 수십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각종 발표와 세미나가 연일 계속되었으나 거의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한편 전시회가 끝난 후 견학한 도요하시의 '(주)JA東

三河GP센타'도 인상적이었는데 나고야, 도요하시 일원에선 가장 큰 규모(1일 53만개, 자동GP기계 3대 가동중, 종업원 35명, 회원농가 22명)의 GP장으로 넓은 공간에 잘 짜여진 배치 등이 인상적이었으나 GP장내의 설계는 이동, 확장 등의 이유로 인해 썩 잘 배치된 느낌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없이 일하는 종업원들과 그들을 위해 부분 냉·난방 시스템 등을 갖춰준 회사측의 멋진 조화로 생산성 최고의 GP장을 대면할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도 한국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녀간 것으로 안다. 하지만 누가 얼마나 많이 보고 배워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의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다.

한날 박람회를 빙자한 관광객에 불과했다면 그 사람의 소득은 별볼일 없었을 것이며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참관한 사람은 나름대로 큰 소득을 얻었을 것이다.

끝으로 박람회에 관하여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개최하듯 양계박람회 역시 한국과 일본이 교대로 2년에 1번씩 개최한다면 내용도 알차지고 서로간에 기술교류는 물론 우의를 돈독히 하여 양국 양계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명실상부한 국제박람회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날 밤 나고야돔구장에서 우리의 자랑스런 선동열선수가 일본 선수들의 콧대를 꺾으며 또하나의 세이브를 추가하여 우리 일행에겐 더욱 잊지못할 뜻깊은 여행이 되었다. 양계